

유아 예술놀이

현재와 미래에

삼삼 더하기

2021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라운드테이블 기록집

유아 예술놀이의

현재와 미래에

삼삼 더하기

2021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라운드테이블 기록집

들어가며	005
I. 행사 개요	006
1.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소개	007
2. 라운드테이블 행사 개요	010
II. 권역별 논의개요	012
진행개요 전문가 여는말 참여기관별 현황 및 고민지점 공유	
1회차. 중부권	013
2회차. 호남권	017
3회차. 경상권	023
4회차. 수도권	029
III. 주제별 주요 논의내용	035
1. 매개자 역량 강화 지원	036
2. 지역 내 자원 연계 및 협업	038
3. 콘텐츠 개발 시 고려할 지점	039
4. 콘텐츠 보급 및 확산 방식의 다각화	041
5. 앞으로 도래할 유아 문화예술교육에 대하여	042
IV. 시사점	044
함께 참여한 사람들	054
[부록] 권역별 세부 논의내용	056

들어가며

유아 문화예술교육 라운드테이블은 유아를 둘러싼 정책, 사회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향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해 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그간 직접적으로 의견을 들어볼 기회가 다소 부족했던 유아시설 지원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관계자들을 모시고 열린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유아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문화예술교육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아들이 경험하는 예술놀이(예술경험)에 대한 기회가 충분한지와 더 나아가 지역 내 취약특수계층 유아 대상 예술놀이 경험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등을 모색해보고자 했습니다.

기술융합, 기후변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유아 눈높이에 맞는 참여형 예술놀이 활동에는 어떤 다양한 상상이 가능할지 새로운 예술놀이 콘텐츠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도 궁리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있는 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유아 예술놀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유아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 나갔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 계기로 향후, 유아들이 생애 초기단계에서 경험하는 예술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전국 각지에서 지역에 맞는 협력의 방식으로 보다 많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10월의 가을 무렵에 권역별 라운드테이블에 발걸음 해주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1년 12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협력팀

1. 행사 개요

1.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소개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아이와락'이란?

전국 17개 지역에 소재한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 콘텐츠를 바탕으로, 누리과정(예술경험 영역)에 연계된 양질의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여 생애 초기단계인 유아기(만 3~5세)에 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 개요

사업명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업배경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최초 수요층인 유아 대상으로 누리과정과 연계한 보편적 교육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 문화예술교육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유아 55.7% (2020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부 국정과제 「67-3. 국민의 문화예술역량 강화」 실현을 위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를 위하여 유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정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17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운영됩니다.

사업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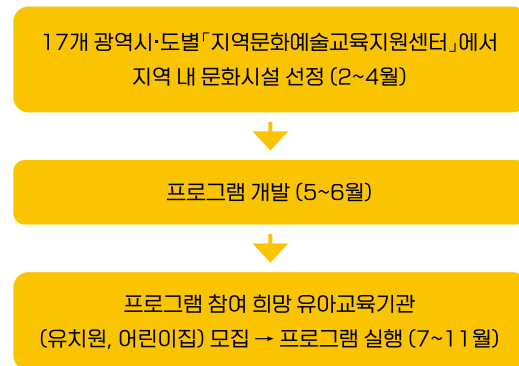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17개 광역시·도(지방자치단체)

사업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7개 광역시·도(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22년 사업 지역이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주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사업 추진

추진방식



참여대상

만 3~5세 유아(유치원 · 어린이집)

주요내용

문화시설의 주요 콘텐츠와 연계, 예술놀이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 참여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고유 콘텐츠 연계 시각예술, 공연예술, 통합예술 분야 프로그램

* 개정 누리과정(예술경험),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활동 및 어린이집 특별활동 연계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하여 프로그램 진행하는 방문형 수업과 문화시설 공간을 방문하는 체험형 수업이 대면 /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방문형] 예술강사가 유치원, 어린이집에 방문하는 문화예술교육 수업 진행

* [체험형] 유아가 문화시설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수업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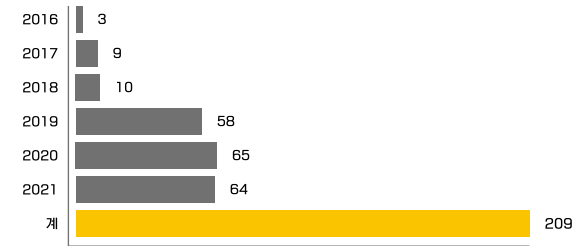
프로그램 별 총 8시수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 1회 수업 당 최대 3시수, 약 4회차 수업 진행

한 눈에 보는 유아 문화예술교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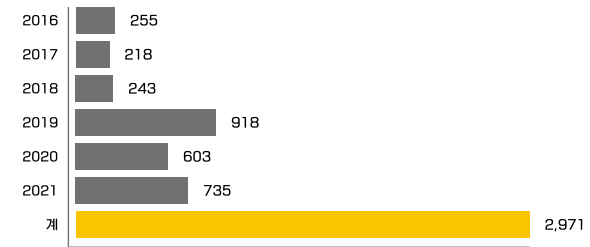
운영기관(문화시설)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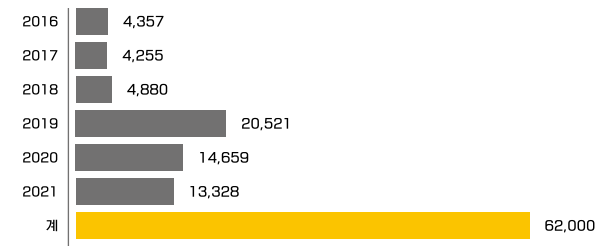
참여기관(유아교육기관)

(단위: 개)



참여인원

(단위: 명)



최근 5년간 유아 사업 참여 문화시설 145개소, 유아교육기관 2,237개소, 유아 총 48,672명 참여

* '21년은 계획기준 참여 예정수치임



■ 행사 개요

행사명

2021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라운드테이블

목적

정책·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유아시설 지원기관 관계자 의견수렴의 장 마련

대상

유아 사업 유관기관 관계자 (광역·기초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

일정/장소

[중부권] 2021.10.19 (화) 14:00~16:00 레스팅플레이스

[호남권] 2021.10.22 (금) 14:00~16:00 리슬디자인랩

[경상권] 2021.10.26 (화) 13:30~15:30 컬티복합문화공간

[수도권] 2021.10.29 (금) 14:00~16:00 삼경교육센터 라움

■ 운영결과

참여인원 총 59명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구분	중부권 (10.19)	호남권 (10.22)	경상권 (10.26)	수도권 (10.29)	합계
오프라인	2	8	13	5	28
온라인	7	4	6	14	31

■ 주요내용

[공리1] 우리 지역 유아들이 경험하는 예술놀이(예술경험)에 대한 기회는 충분한가요?

지역 내 취약특수계층 유아 대상 예술놀이 경험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공리하기

지역 내 돌봄제도 연계하여 공공시설(문화시설, 보건소, 돌봄센터 등)과의 연계 지원하는 방식 공리하기 등

[공리2]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 유아 눈높이에 맞는, 참여형 예술놀이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한 에듀테크 및 메타버스를 활용한 예술놀이,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재난감수성 연계 예술놀이 프로그램 공리하기 등

[공리3]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공간·사람)을 연계해서 다양한 유아 예술놀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역 내 유아(보육)교사 및 부모(가족) 등 유아의 교육(보육)·양육자와 예술가 간 협력하는 예술놀이 공리하기 등



1. 권역별 진행개요

- 일시: 2021년 10월 19일 (화) 14:00-16:00 레스팅플레이스
- 참여자 명단

구분	소속 · 참석자명
전문가	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권이정 교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시화 차장 세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최윤정 팀장 세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김수연 주임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윤미선 주임
유아시설 지원기관 ↳ 유아교육진흥원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교육운영과 오유진 파견교사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교육운영부 황희정 교육연구사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이순오 운영과장

2. 전문가 여는 말



권이정 교수

- 지역 내 대도시 아이들에 비해 농어촌지역 아이들을 위한 예술경험 기회 제공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함께 논의되었으면 한다. 특히 취약계층 유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원이 필요하다. 사업 컨설팅을 진행하며 들었던 의문점은 ‘어떻게 아이들의 체험의 양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가’였다. 아이들의 타고난 배경과 환경, 지역 내의 문화예술 자원 등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예술놀이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사업의 무엇이 바뀌어야 할지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다.

II. 권역별 논의개요

- 현재 유아 대상 기술연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선실행-후고민 하는 구조이다. 기술은 방법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다 예술의 원본성(authentic) 즉, 예술의 본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유아교사는 예술 분야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현장에서 유아교사 예술분야 역량 강화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차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직무연수 운영, 관리하므로 이와 연계하는 것도 방법이다.
- 향후 도래하는 지방이양 상황으로 인하여 각 지역에 맞게 유연하게 사업구조를 설계, 운영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지역별 편차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중앙차원에서 콘텐츠 공유와 확산, 질적 관리를 위해 이에 대한 플랫폼으로서의 정보제공, 균등한 역량 강화 제공 등에 대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내에서는 지속가능한 유아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지역의 문화재단(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유아교육진흥원-육아종합지원센터의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 개발과 확산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3.

참여 기관별 현황 및 고민지점 공유



1)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하 '지역센터')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올해 신규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오로지 프로그램 개발과 기획만 진행하고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2회 정도만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콘텐츠가 잘 나와서 시도가 좋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사업 시작 때부터 대전에 있는 5개 구의 문화격차를 줄이기 위해 각 구별로 교육기관을 모집하게끔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올해 개발된 프로그램이 내년엔 정규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게 유도할 예정이다.

2) 유아시설 지원기관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 현재 유아교육진흥원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화예술공연은 크게 3가지 범주로, 1)일반 가족단위의 공연, 2)다문화가정 대상의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3)특수계층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 중심의 체험교육, 문화예술 공연 등이다. 내년부터 문화예술과 접목하여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체험담당 교사들이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내부 심사 절차를 거쳐 공연팀을 섭외하여 공연을 선보이기도 한다.
- 교육부 차원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회복 측면에서 다양한 기술융합(메타버스, 미디어아트 활용 등)지원, 장려하고 있다. 다만 이것을 유아에게 어떻게 교육적으로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매년 11~12월 무렵에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년도 희망 프로그램 수요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기술연계 프로그램 개발하여 시범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인공지능 로봇의 음성을 활용하여 놀이와 연계한 춤, 역할극 등의 시범수업을 진행하였다. 다만, 기술융합 연계에 능숙한 유아교사가 부재하여 유아교사, 체험교사들의 유아기 특성을 고려한 기술융합에 대한 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 유아교육진흥원이 순천에 있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의 아이들에게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콘텐츠 제공이 제한적인 편이다. 아이들에게 좀 더 질적으로 우수한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 예컨대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목포 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 문제로 콘텐츠 제공의 한계가 있다. 주로 원 내 체험교육 선생님이 공연예술(양상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 내 많은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 또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유치원에 콘텐츠를 제공할 때 검증된 공연예술 콘텐츠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새로운 콘텐츠와의 연

계에 대한 부담감도 존재한다. 가족단위 체험의 경우 지역 내 예술가를 발굴하여 연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지역센터와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



1. 권역별 진행개요



- 일시: 2021년 10월 22일 (금) 14:00~16:00 리스디자인랩

- 참여자 명단

구분	소속 · 참석자명
전문가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유희정 교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종수 팀장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양소정 실무자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엘림 실무자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박찬영 팀장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서정 대리 전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김광훈 팀장 전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심현지 주임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고영빈 주임
유아시설 지원기관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강정현 교육연구사
↳ 유아교육진흥원	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교육운영과 김경희 교육연구사 제주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박은정 교육연구사

2. 전문가 여는 말



유희정 교수

- 유아기부터 '아름다움'을 감지할 수 있는 미적활동에 많이 노출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미적인 친숙감을 의미하는데, 유아기 특성을 고려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아름다운 것을 느끼고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필요로 한다.
- 유아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수혜자인 유아는 부모와 유아교사 등을

동반해야 하므로 아이들이 모여 있는 기관과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여진다. 이를 고려하여 사업의 주요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에 참여하는 일반유아 대상인지, 취약계층 유아 대상인지, 사업의 주요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만약 취약계층 유아 대상 지원일 경우 지역별 돌봄센터와의 연계성을 고려한다고 할 때, 돌봄센터의 참여 연령대, 유아 참여 비율, 지원인력 상황 등을 선행조사하여 연계가 적합한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 작년부터 유아 문화예술교육 사업 컨설팅에 참여하며 아쉬웠던 점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다. 예술단체가 기관과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이 꾸준히 연결되지 못하고 몇 회차 진행 후 종료되었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유아와 가까이 있는 매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의 의무 직무연수 또는 보수교육에 문화예술 분야의 교과목이 인정된다면 유아교사의 참여가 보다 수월하지 않을까? 이와 더불어 관리자급(원장·원감) 대상 연수가 중요할 것이다. 지방이양 상황으로 유아 사업도 지역별 맞춤형 사업 운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중앙 차원에서 유아 사업 현황조사 등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계데이터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 교사 대상 연수도 준비 중이지만 일정을 잡는 것부터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지점이 많다.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유아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장과 행정 사이를 조율해나가야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지점이다. 지역 내에 문화시설은 많으나 예술단체 협력 운영에 대한 수요가 적어서, 공모사업 내 어떠한 지점을 강조해야 문화시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지 고민이다. '22년 사업이 지역이관 된다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수, 참여인원에 대한 변동은 줄 것으로 보인다.

- 유아교육진흥원과의 협력을 위하여 시교육청 담당 주무관과 시도했으나, 생각보다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소통은 아직 시도해보지 못하였다. 내년도 사업의 지방이양을 고려하여 기관 간 협력이 더욱 강조된다면, 사업 내외부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인다.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작년과 큰 차이 없이 3개 운영단체가 선정이 되었으며 각 운영기관의 지리적 아쉬움 존재한다. 실질적으로 진행을 위해서는 연령대와 교육기관의 이동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전주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전북의 14개 시·군에 거점을 갖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단체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국에도 비대면 수업 진행 등으로 사업을 무사히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사업 운영 노하우, 방법론들이 충분히 공유되고 축적되었으면 한다.
-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유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설, 단체, 공간 등 자원이 부족한 편이다. 공적영역을 벗어나면 비용이 수반되는 민간영역(사교육, 문화센터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유아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공적영역 안에서는 한정된 예산과 재원에 갇히게 되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경우에 따라서 공공 및 민간이 함께 유연하게 협력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전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올해 처음으로 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공모를 진행, 유아 대상의 특수성, 전문성으로 인해 지원하는 단체가 적었던 점과 선정 과

3. 참여 기관별 현황 및 고민지점 공유



1)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하 '지역센터')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아이들과 가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더 많은 문화예술을 접하며 놀 수 있을지를 컨셉으로 올해 학부모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반응이 좋았

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어려운 지점이었다. 특히 지역 내 21개 시·군 유아시설 지원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의 협조 없이는 유아교사 연수 운영이 어려운지라,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는 참여자 모집 협조를 요청하여 유아교사 대상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대상을 다각화하고자 매개자 연수를 기획, 유아교육진흥원과 교사대상 연수를 직무연수로서 시수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올해는 직무연수 추진은 어려웠으나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향후 유아교사 연수를 직무연수로 인정하는 방법, 연수 프로그램 지속 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 사업 컨설팅, 자문 이후에 현실적인 한계로 지역 현장에 적용이 어려운 부분 존재한다. 특히 유아가 지역 내 문화시설 활용하여 예술놀이 경험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인데, 지역 내 수업 진행할 수 있는 창의적 공간들이 많지 않아서 체험형 수업 진행에 아쉬운 부분이 많다. 어떻게 하면 유아 사업의 궁극적 취지를 지역 여건에 맞게 변형, 연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올해 새로운 점은 3년차 단체들, 시설들을 대상으로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범운영을 진행하였다. 3년 동안 개발한 프로그램들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앞으로 **문화시설이 공모에 의존하지 않고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가능성을 보고자 한다.**
- 3년차에 접어들며 실질적으로 사업이 발전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보이고 있지만, 연구·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학문적인 데이터나 결과물로 나오지 않아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다.
- 또한, 사업이 과연 문화시설 혹은 수혜자(유아)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업의 근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있다. 특히나 내년도 사업이 지역으로 이관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고민이 더욱 심층 될 것으로 보인다.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꾸준한 협업으로 참여자 모집, 만족도조사 등 사업 관련 협조를 받고 있다. 유아교사 연수를 추진하며 ‘과연 1-2회차 연수가 효과성이 있는가?’ 라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

민하게 된다. 협력사업으로 예술가-유아교사의 구조가 이야기되고 있지만 유아와 예술놀이에 대한 접근방식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협력이 어렵다. 오히려 ‘기획자 양성학교’와 같이 사업에 부합하는 역량과 태도는 지닌 인력, 예컨대 **예술가적 자질이 있는 유아교사, 유아교사의 태도를 지닌 예술가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 향후에도 유아시설 지원기관과 협력 예정이며, 유아 사업을 더욱 홍보할 필요성을 느낀다. “유아기부터 지역 내 문화시설에 방문, 참여하여 예술감수성 함양” 이라는 사업의 가치를 보다 구체적 이미지로 전달하여, **유아시설 지원기관 관계자가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내재화 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2) 유아시설 지원기관

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 도교육청이 소외계층 지원에 대한 정책 고민을 하는 역할이라면, 진흥원은 유아교육체험을 지원하는 역할이며, 지원대상을 일반·소외계층 등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주요하게 3가지 사업 1)유아체험, 2)교원연수, 3)교재·교구대여 업무를 추진한다. 유아 체험은 실내·외부로 구분되어 있고 5개 영역 체험이 정해져 있다. 실내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꿈터(꿈꾸는 놀이터)가 조성되어 있고, 문화예술과의 접목보다는 건강 영역의 체험에 가깝다. 도 내에 있는 공·사립 유치원의 신청을 통해 진행하고, **설비가 잘 마련되어 있어서 지역 내에서도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주로 지역 내 극단에 있는 공연들을 초청하여 진행하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지역 내 자원 발굴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간에는 지역 내 예술가를 연계하기가 어려웠다.** 유치원에서는 방과후 특성화 활동을 주 3회 진행할 수 있는데, **기관 간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면 고무적일 것이다.**
- 교원연수에서 문화예술 영역 관련 연수는 일부 개설의 여지가 있으며, 기관장의 문화예술 분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아교사 연수 내에서 누리과정 연계 예술놀이 기회 제공, 사회적 이슈가 되는 기술융합, 환경 등 교육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면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 유아교사 연수를 통해 교사가 수업에서 어떤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는 연수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

- 세 가지 주요한 사업으로 1)유아체험, 2)교원연수, 3)유치원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유아체험으로 문화예술 전문 공연단 6개 팀을 선정하여 교육행사 활동을 지원한다. 공연팀과 유치원은 매년 초에 공모로 선정하며, 주로 공연예술 분야(재즈, 국악, 이야기극)를 지역문화자원(제주전통설화, 제주해녀)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1. 권역별 진행개요

- 일시: 2021년 10월 26일 (화) 13:30~15:30 쉼티복합문화공간
- 참여자 명단

구분	소속 · 참석자명
전문가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박초아 교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박소라 담당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한나 주임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황지현 대리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현해 팀장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양영준 주임 경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유지용 과장 경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박연미 주임
문화시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남광옥 주무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권민정 문화예술교육사
유아시설 지원기관 ↳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김정신 센터장 경북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박정태 센터장 경북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서기영 보육교사 경북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팀 홍미향 팀장 경북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 현선옥 보육전문요원
유아시설 지원기관 ↳ 유아교육진흥원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운영부 김선옥 교육연구관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운영부 박지연 교육연구사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운영부 전지영 교육연구사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운영부 박은영 파견교사

2. 전문가 여는 말



박초아 교수

- 울산이 타 지역에 비해 문화자원 부족한 편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이 문화시설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유아사업의 적극적 참여가 어려운 구조이다. 유아와 연계된 지원기관으로의 저변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 개정누리과정의 모든 요소들이 '예술경험'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예술강사가 전문가로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직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연간 40시수) 승급 시마다 80시수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직무연수의 의무성을 활용하여 '예술감수성' 역량 강화를 위한 과목 지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4년도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직무연수 교과목 개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직무연수 교과목 개정 연구> 추진 시 예술영역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보인다.
- 전국에 125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arte)을 중심으로 지역센터, 예술단체 현황,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자료화 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공유한다면 광역·기초 단위에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유아 대상 콘텐츠 확산 등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최소한 3~5개년 안에서 이 논의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 복지부의 아이누리 홈페이지에 이런 양질의 데이터와 콘텐츠가 탑재된다면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3. 참여 기관별 현황 및 고민지점 공유



1)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하 '지역센터')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강사풀이 적은 편이고, 3년 간 동일한 시설과 단체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었다. 내년에는 신규 단체 발굴에 주력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시설에서 진행되는 체험형 수업의 경우 예술강사 없이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데, '예술강사가 빠지면 프로그램의 질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유아교육기관의 대다수가 유아기관을 방문하는 방문형보다는 문화시설을 방문하는 체험형을 선호한다. 내년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보조금을 교부 받을 수 있는 시설 대상으로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왜 문화시설만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차년도에 시설-단체 컨소시엄으로도 공모 예정이다. 최근 3년간 개발한 콘텐츠는 결과보고서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으며, 공연 예술 외 다른 예술분야의 유아 콘텐츠 개발을 희망하고 있어서 사업 홍보에 대한 고민이 있다.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지속적으로 신규 단체, 기관들이 들어와 유아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수요가 많지 않아 기존의 기관이나 단체가 그대로 진행하는 부분이 고민 지점이다.
- 한정된 유아 사업 예산으로 유아시설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콘텐츠를 보급하고 확산하며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예컨대 유

아 대상 프로그램과 매개자 대상 프로그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재가공 혹은 또다른 콘텐츠를 만들어 보급, 확산하는 방법도 고려되었으면 한다.

경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3개의 예술단체와 문화예술시설이 협력하여 사업 진행 중이며, 이 경우 시설은 단순 장소 제공의 역할로 끝나는 게 아쉬운 부분이다. 시설에 연계된 콘텐츠 발굴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매년 참여 예술단체가 바뀌기 때문에 콘텐츠가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예술단체-시설 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 시설에 특화된 콘텐츠를 예술단체가 발굴하고 유아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를 계속 활용하고 싶은데, 예술단체의 연속적 운영이 확보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정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이 아쉽다. '21년도에 예술강사와 휴직중인 유아교사 협력으로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수준은 높아졌지만 예술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 유아교육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지 않았는데, 이러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2) 유아시설 지원기관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 올해 유아 사업 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7월 부산센터가 추진한 유아 유관기관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했다. 교육청 차원에서도 유아기 예술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진흥원은 1)가족체험, 2)교원연수, 3)가족체험 등을 운영한다. 올해는 '찾아가는 수업'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유아교사 대상 연수를 전문적으로 듣고 싶다는 수요가 있기에 내년도에 이를 준비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할 의사가 있다.
- 유아교사 대상 연수 수요가 높은 편이라 지역 내에서 개발한 유아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단발성과 끝나는 것이 아쉬워 부산센터에 협업하여 교사연수 추진을 먼저 제안했다. 모든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유아교사 대상 연수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다.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연수는 자체 개설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1년 단위의 직무/보수교육이 역량 강화와 직위승급을 위한 연수로 나뉘어져 있다.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올해 7월 부산센터가 추진한 유아 유관기관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하며 유아 사업을 알게 되었다. 부산센터와 연계하여 디오티미술관 유아교사 프로그램을 일부 변형하여 4회차로 운영하고자 한다.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교사연수를 의무 지원하고 있으므로 교사연수에 대한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 강조될 것이다. 이는 개정누리과정, 표준 교육과정의 놀이 중심 수업 진행을 위해 보육교사의 '예술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육교사가 아이들과 '놀이'함에 있어서 창의적, 예술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기에 인력양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속적인 비대면 상황을 고려, 매개자들이 온라인으로 예술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영상 등으로 온라인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경북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문화예술 단체나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문화행사나 단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연 8회 정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전면 중지되었고,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가정이나 어린이집의 수요는 많지만 예산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이 보급, 확산되었으면 하고 향후 경북센터와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경북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단편적인 관람이나 체험 프로그램이 대다수인 점이 늘 아쉬웠다. 이미 개발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를 진행하거나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예술경험 영역은 개정 누리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개자 연수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



3) 문화시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안동예술의전당은 주로 공연, 전시, 교육이 진행되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공연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며 자연스럽게 예술체험을 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시설이 안동시 소속이어서 안동시와 경북문화재단의 예산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공공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에서 참여에 협조적인 편이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시기가 유치원 학사일정과 다소 맞지 않아 향후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향후에는 양질의 검증된 콘텐츠는 확산 측면에서 연속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되었으면 한다.**



I. 권역별 진행개요

- 일시: 2021년 10월 29일 (금) 14:00~16:00 삼경교육센터 라움
- 참여자 명단

구분	소속 · 참석자명
전문가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 마미정 센터장 인양대학교 유아교육과 김민정 교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고은 대리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정진주 과장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김유미 담당
유아시설 지원기관 ↳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엄지홍 보육전문요원 부산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안진희 팀장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김성희 선임보육전문요원 인천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오선영 센터장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흥원자 센터장 경기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백인옥 센터장 경기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백소영 센터장 경기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문현주 선임팀장 경기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양은지 선임팀장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정책지원팀 홍유림 팀장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정책지원팀 정슬기 놀이지도사 경기파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정영숙 센터장
유아시설 지원기관 ↳ 유아교육진흥원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정명희 원장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윤영숙 교육연구사

2. 전문가 여는 말



마미정 센터장

- 현재 사업이 유아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유아의 양육 유형별(유아교육기관/돌봄/공동육아 등)로 콘텐츠 지원 방향이 달라져야 하며, 대상별 균등한 기회 제공도 고려되어야 한다.
- 사회환경의 변화와 흐름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에서는 매개자 대상 교육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유아 대상 메타버스 교육보다는, 유아교사 대상 메타버스 대상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재 개정누리과정에서 '놀이'의 통합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놀이중심 교육이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사 대상 연수는 의무/선택 연수에 따라 동기부여가 다르므로 '직무연수' 보다 '문화감수성' 용어를 사용하여 교사의 자발적 참여 강조한 문화감수성 역량 제고를 권장한다. 나아가 유아에게 있어 유아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도 중요한 교육 대상이므로 인적자원을 부모 대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 현장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기획사업 내에서 유아교사-예술가 협력 콘텐츠 개발을 권장한다. 예술가뿐만 아니라 보육·유아교육 전문가 함께 협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동아리사업 '아빠육아천사(1004)단'과 같이 유아교사 대상 연구모임 성격으로 지역센터, 예술가와 연계하여 인적자원 발굴 차원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관계자 대상 예술가-유아교사의 시각을 결합한 공모 추진을 권장한다. (가칭 "생각돌, 우리는 하나")
- 지역 내 콘텐츠 확산, 연계 측면에서 유아시설 지원기관에서 웹진 등 자체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지역센터의 콘텐츠, 프로그램, 행사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연계되면 좋을 것이다. 결국 양질의 콘텐츠가 지역 내에서 지속 가능해질 수 있는 생태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3. 참여 기관별 현황 및 고민지점 공유



1)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하 '지역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참여자 모집에 난항을 겪었다.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가 마련되어 있었다면 모집에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다.
- 사업 예산으로 서울 전역을 지원하기는 충분하지 않으나 보편적인 접근으로 콘텐츠를 확산하고자 한다. 단순히 활동 주입식의 교육이 아닌 누리과정을 통한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는 편이다. 특히 사교육 시장이 큰 상황에서 좋은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사교육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어떻게 포지셔닝 할 것인가? 본 사업을 기반으로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저변을 확산하는 것에 대해 고민 중이다.
- 작년에 예술가인 부모 대상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향후에도 매개자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보다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아이를 보고 있는가', '유아에게 왜 예술을 지원하는가' 등 본질적인 사업의 대상인 유아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작년대비 큰 변화는 연속공모로 인해 상반기에 유아교육기관의 참여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유아시설 지원기관과의 협력 덕분에 공신력을 기반으로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었고, 센터가 직접 참여하여 유아교육기관과 단체를 매칭했다.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점은 아쉽다.
- 사업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과 유아교육진흥원과 유아교사에게 예술가의 놀이방법 공유를 위한 개정 누리과정 심화 연수, 권역별 조부모 연수 등을 진행하며 체계화에 주력했다. 향후에도 유아시설 지원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연계 예정이다. 유아교사에게 예술가의 놀이방법 공유를 위해 전달식 연수 성격으로 유아교육진흥원과 올해 2월 개정누리과정 심화연수와 권역별 조부모 연수를

진행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하반기 부모, 조부모 연수도 준비 중이다.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지역 내 5개 기관과 공모, 기획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돌봄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경기 북부는 문화소외(기지촌 등) 지역이 많고 기초재단이 부재하여 유아들이 문화예술교육의 수혜를 받기 힘들다.
- 이번에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과의 협업을 통해 예술단체가 있는 기지촌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여 찾아가는 형태의 기획사업 추진을 고려 중이다. 또한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로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유아 문화예술교육 연수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2) 유아시설 지원기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 직접 공모를 통해 예술단체, 프로그램을 선발하고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공연장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대도시에서 어린이집, 가정양육 유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예컨대 지자체에서 영유아 문화예술 수행기관으로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오페라 수업을 진행한 바 있다.
- ‘대학동아리 연계사업’을 통해 지역 내 대학과 유치원을 연계하여 공연예술 중심의 체험활동을 지원하였다. 전문 예술가에 비해 전문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진행, 지역자원을 엮어가는 역할을 3년째 진행 중이다.

경기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이천은 공예, 생태 자원이 많으나 성인중심의 시설이다 보니 그 한계를 넘어서고자 센터 안으로 도자재단 프로그램들을 연계하기도 하고, 생활공예 체험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예술이 우리의 삶과 가까이 닿아 있다는 데에 중심을 두고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영유아들이 문화예술을 가깝게 느끼고 흥미를 가

질 수 있게 해주는 데에는 교사나 부모와 같이 중간 매개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인다.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부모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예술놀이는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다. 지역센터에서 부모대상 연수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함께 연계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 콘텐츠 개발 주제는 매년 달라지며, 실제로 ‘손 유희’ 활동인 생태미술 등에는 꾸준한 수요가 있다. 가정양육지원에서는 오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호하며, 특별활동에서 자유놀이 등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수요가 있는 편이다. 현재 시에서 보육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 내에 박물관이 건립되면 프로그램도 함께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현재 가정양육지원팀에서는 지역별 센터에서 자체 놀이시설(놀이실)을 활용한 경험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업 내에서도 이러한 지역자원을 고려하여 설계가 필요하다. 놀이실 활용 프로그램은 분기별 주제를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센터 안에서도 자유로운 예술놀이가 화두이지만 기존 자원으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적절한 놀이공간과 콘텐츠 연계, 결합도 가능하다면 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파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가 순수예술 놀이경험과 결합되었으면 한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예술을 접하고, 직접적인 예술 경험을 위하여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공간이 상시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

부산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예술놀이에 대한 인프라가 수도권 지역보다 부족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역 간 콘텐츠 격차도 해소할 수 있는 메타버스 콘텐츠도 개발되면 좋을 것 같다. 부산문화재단이 문화예술 공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인형극, 합주단 등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향후에도 지역 내 콘텐츠와 인프라를 연계한다면 더욱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III. 주제별

주요 논의내용



유아교사 대상 문화예술 경험에 대한 유아교육 현장의 수요

- 유아 문화예술교육에서 예술가의 참여로 예술놀이 수업의 질은 향상되지만 예술가 없이는 콘텐츠의 시연이 어려워 지역에서 개발한 콘텐츠의 지속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유아에게 미적감수성을 발견하게 해주는 데에는 부모나 유아교사와 같이 매개자의 지원이 필요하다. 유아들은 일상에서 매개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며, 특히 유아교사가 예술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 강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매년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내년에 희망하는 연수와 교과목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데, 유아교사들이 전문적으로 문화예술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가 꾸준히 있다.
- 그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사연수가 단순 체험에 그쳤다면, 유아교사가 아이들의 놀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술적 역량을 함양하여 아이들의 창의적인 놀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

예술놀이 매개자·실행자의 범위와 역할의 확대 (유아교사 및 부모)

- 가정양육, 돌봄 등 양육의 다양한 형태를 고려하여 유아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현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반적으로 영유아 시기에 필요한 양육 지도와 부모 교육을 진행 중이지만 내 아이에게 예술교육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에 대한 주제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문화예술교육에서 예술가의 전문성이 중요한 가치인데, 참여 연령

대가 낮아질수록 '수업의 전달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표가 있다. 유아 문화예술교육에서 다양한 매개자들이 수업의 실행자가 되는데, 여기에서 예술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매개자 연수의 목적이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교사가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한 안목을 향상하기 위함인가, 교사가 직접 수업의 실행자(보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인가?

- 수업 전달의 주체는 누구나 될 수 있다. 유아의 주변에 있는 부모, 조부모, 유아교사 모두가 수업의 매개자 역할을 하면서 실행자로 참여 가능하다. 매개자들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예술가들과의 시너지를 기대해볼 수 있다.

누리과정(예술경험)영역의 의무연수 교과 내 문화예술교육 반영 고려

-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놀이성'과 다섯 가지 인간상(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은 결국 예술경험과도 맞닿아 있다.
-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연간 40시수의 직무연수(승급연수 80시수)를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직무연수의 의무성 활용하여 교과목 내 2-3시간 내외의 문화예술교육 영역을 과목(가제: '예술감수성')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14년도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교과목 개발 연구 진행한 바 있으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협약기관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관계부처·기관(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한국보육진흥원)과 협의하여 <표준 교육과정 교과목 개정 연구> 수행 시 누리과정 직무연수 내 예술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권장한다.
- 직무연수 내 지정과목으로 추가되는 것이 어렵다면, 중앙 차원에서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하여 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한 '문화감수성' 연수, 관리자급(원장·원감) 대상 문화예술교육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를 개설하는 등의 체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지속가능한 역량 강화 지원 체계 마련과 확산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역량 강화 지원 체계 마련과 확산

- 중앙 단위에서 매개자 대상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연수가 진행되고, 심화·연계 연수는 수요가 있는 지역별로 지역센터-유아시설 지원기관간 연계하여 추진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지역센터의 지속가능한 매개자 대상 연수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행자와 매개자를 발굴, 양성하기 위한 사업구조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 예컨대 예술 전문가와 유아교육 전문가가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이 몇 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종료되면 그 효과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유아시설 지원기관들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소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향후 콘텐츠 보급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 내 자원 연계 및 협업



지역 문화시설, 유아시설, 대학 등 관련 기관과 연계

- 유아 문화예술교육과 사교육 시장과의 차별점은 바로 지역 자원과의 연계이다. 지역의 시설에서 예술가들과 함께한 예술놀이의 경험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성장시키는가'가 유아 사업의 핵심이다.
- 지역 내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유아시설, 대학 동아리와 연계가 가능하다. 부산 지역은 지역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협력을 통해 지역의 예술단체와 기관을 연결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 지역의 경우, '대학동아리 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에 소재한 대학과 어린이집을 연계하여 공연예술 체험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유아시설의 놀이실을 활용한 다양한 예술경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된 콘텐츠의 현장 활용성을 고려한 연계와 협업

- 유아 문화예술교육에서 개발된 콘텐츠가 해당 유아시설과는 맞지 않아 콘텐츠의 개발 단계부터 결합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고, 유아시설에 있는 선생님들은 예술단체가 떠나도 아이들과 계속해서 예술놀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에 대한 연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개발된 콘텐츠의 현장 활용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연계하고 협업해야 하는가?
- 현장을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인적자원 연계하여 콘텐츠 개발, 재가공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콘텐츠 개발 시에는 예술가-보육·유아교육 전문가와 함께 협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한 예시로 인천 지역에서는 동아리사업 '아빠육아천사단(1004)'의 유아교사 연구모임으로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 현재 일부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이나 기술융합에 대한 주제 중심의 콘텐츠를 개발 연구 진행 중이다. 유아교사나 예술가들도 서로의 영역과 결합하여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개발하려는 수요가 있으므로 향후 지역 내 인력풀이 공유되어 적합한 인적자원이 함께 협력한다면 더욱 현장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콘텐츠 개발 시 고려할 지점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이에 대한 유아교육 현장의 수요들

- 유아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개발하는데, 유아시설이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수요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정기적으로 매년 11월 무렵에 유아교육과 관련한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유아교육 현장의 수요를 확인한다. 부모를 대상으로는 가족체험을 진행할 때 수시로 의견을 들곤 한다.

- 교육부 차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회복 측면에서 다양한 기술융합(메타버스, 인공지능 활용)지원을 장려하고 있다. 충남 지역의 경우, 기술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인공지능 로봇의 음성을 활용하여 놀이와 연계한 춤, 역할극 등 시범 수업을 진행하였다.
- 유아교육 현장에서도 기술융합과 유아의 연계에 대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다. 현재 기술연계 프로그램은 선실행-후고민 하는 구조이므로, 예술의 본질보다 방법론적인 것이 강조되는 것에는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회환경의 변화 속에서 유아기 발달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 방식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콘텐츠 개발 시 실질적인 고려사항

- 유아시설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콘텐츠 수요 조사를 통해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해야 한다. 콘텐츠의 현장 적용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개발단계부터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장의 보육교사, 유아교사들의 의견을 참고할 것을 권장한다.
-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유아·놀이중심과 아이들의 자발적인 참여성 유도는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방향이다.
- 기관 간 협력으로 콘텐츠를 연계하여 개발할 경우, 전년도 연말 시기에 이에 대한 사전 논의를 진행해야 예산, 역할 등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유아 맞춤형 콘텐츠 개발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 이미 개발된 유아 문화예술교육 콘텐츠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유아교육쪽에서 직접 콘텐츠 개발이나 기획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사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유아 콘텐츠가 다를 수 있는 내용이 더욱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콘텐츠들 대다수가 문화시설 연계 콘텐츠이므로 문화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해야만 하는 한계 존재한다. 현장의 수요를 참고하여, 기존의 연수과정을 활용하여 유아교사 대상 전달식 연수 혹은 비대면 교육 등을 통해 재가공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 유아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예술가와 유아교사의 시각이

결합되어야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다. 예컨대 예술가와 유아교사 대상 기획공모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좋은 콘텐츠가 개발되면, 계속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에 우수한 콘텐츠를 개선해가며 지역 내에서 지속가능한 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4. 콘텐츠 보급 및 확산 방식의 다각화



중앙 차원의 콘텐츠 보급 및 확산의 지원

- 중앙 차원에서 콘텐츠 확산에 있어 3~5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콘텐츠 보급의 로드맵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역센터, 예술단체, 프로그램 현황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여 광역·기초단위 유아시설 지원기관에 지속적으로 배포, 공유하는 지원 등이 필요하다.

비대면 콘텐츠 보급과 매개자를 통한 확산

- 유아가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에 방문하여 예술경험을 할 때 그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이해하기 쉬운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 유아시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 기존의 놀이 프로그램을 영유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였다. 또한, 비대면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수요도 확인되었다.
- 일부 지역센터에서는 양질의 콘텐츠를 보급하여 지역 내에서 확산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존 콘텐츠를 재가공하여 매개자 대상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요도 확인되었다. 또한, 비대면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수요도 확인되었다.

유아시설 지원기관의 플랫폼을 활용한 확산

- 지역센터에서는 사업 콘텐츠를 홈페이지 내 탑재, 책자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자원을 열람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된다면 기관 간 협력, 연계사업 등 현장에서의 활용도 높아질 것이다.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누리과정 포털사이트 'i-누리' 플랫폼에 지역별 유아 문화예술교육 양질의 콘텐츠들이 탑재될 수 있다면 현장의 활용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유아시설 지원기관에서 웹진 등 자체 홍보채널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지역센터의 콘텐츠, 프로그램 등에 대한 홍보도 고려할 수 있다.

- 지속가능한 유아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지역 내 문화재단(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유아교육진흥원-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역 자원의 연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이 담긴 콘텐츠 개발, 확산 등의 시도들이 기대된다.

5.

앞으로 도래할 유아 문화예술교육에 대하여



지역별 다양한 주체들의 지속적인 논의 자리 마련 필요

- 본 행사를 통해 지역센터-유아시설 지원기관이 상호 구체적인 사업들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향후에도 기관 간 협력, 연계할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 더욱 자주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지역 내 유아 문화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유아시설 지원기관, 또는 관련 관계자들과의 협의체가 마련된다면 더욱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지역의 특성이 담겨 있는 유아 문화예술교육 행보 기대

- 향후 도래하는 지방이양 상황으로 각 지역에 맞게 유연하게 사업구조를 설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단, 지역별 편차가 가속화되지 않도록 중앙차원에서는 콘텐츠 공유 및 확산, 질적 관리를 위하여 이에 대한 플랫폼으로서의 정보제공, 균등한 역량 강화의 제공 등에 대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IV. 시사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유아 문화예술교육 현황과 고민

- 당초 중앙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추진되던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광역지자체 단위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중앙에서 추진되는 기존의 사업방식, 즉, 지역의 문화시설에서 콘텐츠를 개발하여 유아시설을 방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던 방식이 유지되었으나, 지역의 수요 상황과 자원 여건 등에 따라 점차 다른 시도를 통해 변모하는 양상을 띠어 왔다. 특히, 예술적인 프로그램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본래의 취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유아교사와 같은 직접매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하게 됨에 따라 여러 지역에서 **유아교사,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나 연수의 시도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과 전남센터에서는 유아교사 대상 연수를 추진했으며, 인천, 광주, 제주센터에서는 매개자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부모와 조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지원하였다. 나아가 서울센터에서는 예술가이면서 부모인 예술가 부모를 대상으로 세분화하여 역량강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이렇듯 지역센터에서는 **유아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직접매개자의 중요성을 느끼고, 대상을 확장, 세분화하여 역량을 강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 실제로 지역센터가 지역의 여건에 맞게 유아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유아 참여자의 모집이나 유아기관과의 일정조율의 어려움이었다. 지역센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개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혹은 이들에 대한 유아 중간지원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과의 관계망을 형성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 보니, **유아교육 현장 관계자와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이를 고려할 때, 지역 안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지역센터와 유아 중간지원기관 간의 밀접한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지역의 문화시설이나 예술가의 결합을 통해 아무리 창의적인 유아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단계에서 아이들의 상상

력을 자극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공간이 부족하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지역에 존재하는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등)의 콘텐츠와 공간을 활용하자는 동 사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역 문화시설의 물리적 여건에 대한 격차가 심한 경우, 여전히 유아들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위한 공간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다시 한번 짚어볼 지점이다. 이 경우, **문화시설의 콘텐츠를 활용하더라도 지역 내 새로운 공간의 발굴과 협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또한, 전년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수업에 대한 고민도 가중되었다. 유아의 예술체험은 대면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현실 하에서 대부분의 지역센터들이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예술가나 문화시설 관계자들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인 **비대면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노하우의 공유가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유아라는 대상의 특수성에 더해서, 이러한 대상의 비대면 참여방식의 고민이라는 부담감까지 가중되면서 사업에 참여하려는 역량 있는 문화시설이나 예술단체, 예술가가 저조해지는 경향도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아시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필요와 체감도

- 전국적으로 약 47%의 유아들은 시설(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아시설들은 지역마다 **중간지원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광역 단위)과 육아종합지원센터(광역·기초단위)가 지원하고 있다.**

[표] 지역별 유아시설 중간지원기관 시설 수 현황 (단위: 개)

구분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광역	기초	계
중앙	-	1		1
지역	15	18	106	124
계	15	125		

- 유치원 **중간지원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은 전국 15개 교육청 직속 기관으로 유아, 학부모, 교원을 위한 체험·연수·연구·유치원 평가 등을 실시하는 **종합적인 유아교육 지원 전담기관**이다. 문화예술 체험

교육을 제공하여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교원들을 위한 전문연수와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교육청과 현장(유치원, 교사, 학부모) 유관기관 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중간지원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 가정의 포괄적 육아지원 전문기관**이다.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 지원, 보육교직원 전문역량과 부모 양육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중앙 및 지역(광역·기초단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1년 5월, 한국문화예술교육교육진흥원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역별 유아 문화예술교육 관련 콘텐츠 교류와 상호 협력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위와 같이 지역마다 유아교육·보육 시설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중간지원기관이 유아들의 예술체험 및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의 필요성과 체감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부분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모두 유아시설의 수요를 반영하여 자체적인 예술감상·체험 프로그램들을 기획·운영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우리 지역'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매력적인 유아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나 예술단체·예술가 그룹의 정보에 도달하기까지가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유아라는 특수성을 지닌 대상을 고려하여 개발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연계하거나 예술가를 섭외하고 싶어도, 어디로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조차 너무 막막하다는 것에 대부분의 관계자가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센터가 현재 매년 개발하고 있는 유아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와 기획·실행주체들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공유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모두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비정기 연수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이에 **유아시설들이 연수 프로그램 내에 문화예술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정 누리과정('19년~) 내에 놀이성과 유아의 주도성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유아시설의 일선 현장에 있는 유아교사들로서는 이에 대한 인식전환, 노하우, 태도의 습득 등을 위한 기회가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예술가와와의 활동 속에서 유아**

의 '놀이', '주도성', '유연함'이 모두 담겨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요소가 개정 누리과정 내 강조지점과의 접점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인천, 제주 지역에서는 지역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 혹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간의 협업을 통해 유아교사 및 부모 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확장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 다만,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언급하였듯이 유아시설 관계자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예술교육 혹은 예술교육의 근본적 개념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체화하기 위해서는 정규 연수과정 내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부 유아시설 교사들만이 참여하는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유치원장 및 교사들이 연간 참여해야 하는 연수 시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이 이수해야 하는 의무연수 내에 문화예술교육이 포함되어야만 유아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환경이 적극적으로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센터들이 지역 내의 유아 중간지원기관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동시에, 중앙 단위에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유아 관계자의 역량강화 과정에 문화예술교육이 공식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또한, 지역센터와 마찬가지로 유아 중간지원기관에서는 유아들의 자유로운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상시적 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현재 일부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이들의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한 체험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전북 유아교육진흥원은 지역 내에서 자체 공간체험과 설비비용이 활발하며,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자체 놀이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자체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해당 공간을 활용한 주제별 콘텐츠 개발, 예술가와 연계한 문화예술 체험 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구조는 지역에 존재하는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등)의 콘텐츠와 공간을 활용하자는 동 사업의 취지에서 문화시설과 연계된 콘텐츠 개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과 연계된 콘텐츠를 활용하더라도 공간을 보유한 유아시설 및 기관의 발굴과 협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수업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가 되었다. 특히 비대면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유아교육 현장인 유아시설과 가정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2020 유아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조사 연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사업 참여 유아시설 중 비대면 수업 진행비율이 23.3%로 나타났으며, 유아시설에서도 비대면 수업 진행에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2020 유아 문화예술교육 콘텐츠기반 비대면 수업 사례 및 체계개발 연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따르면, 그간 예술가를 중심으로 진행된 대면 수업 방식과 달리, 비대면 교육에서는 예술가의 기획의도에 맞게 유아에게 수업을 전달하는 매개자(유아교사, 부모 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한 바 있다. 비대면 수업방식은 영상이나 키트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는데, 유아교사가 문화예술 수업을 직접 진행할 노하우가 부족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유아교사의 원활한 비대면 수업 진행을 위하여 교사가 미리 내용이나 방식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가이드가 제공되거나 혹은 수업목표를 충분히 이해하고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예술적 역량강화의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역별 지속가능한 유아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제안사항

- 첫째, 지역별 유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확산이 필요하다. 유아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는 활동주체, 정보의 공유가 협력의 중요한 마중물이 된다. 유아시설에서는 지역별로 참여하는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활동주체, 문화시설과 이들이 개발한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며, 지역센터에서는 유아 중간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콘텐츠를 연계하고 확산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역별로 참여하는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활동주체, 문화시설과 이들이 개발한 콘텐츠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공유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에서는 간담회,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사업을 소개하여 사업 유관기관이 지역센터의 역할과 다양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협력망이 형성된 기관은 콘텐츠를 연계, 확산하는 측면에서 협력기관의 플랫폼에 콘텐츠를 탑재하거나 자체 홍보채널을 통해 다양한 정보들이 교류된다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보가 교류될 것이다. 나아가 중앙 차원에서는 중기적 관점에서 전국단위의 유아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발굴 및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지역센터, 예술단체, 프로그램 현황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여 광역·기초단위 유아 중간지원기관에 공유, 배포하여 그것이 지역 간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지원하는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 둘째, 지역센터와 유아 중간지원기관(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간의 적극적 연계가 필요하다. 상기에서 언급한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적극적 홍보와 확산은 지역센터와 사업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전제로 한다. 다만, 유아 중간지원기관은 지역별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자 모집·홍보의 지원 역할에서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협력과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이미 개발된 유아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현장수요에 맞게 재가공하거나, 공동 콘텐츠를 개발하는 차원의 다각적인 협력과 연계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특히 유아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예술가와 유아교사의 시각이 결합되어야 현장 활용도가 높은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다. 문화시설과 예술단체가 지닌 예술적 역량과 유아시설이 지닌 유

아교육의 전문성이 결합되기 때문이다. 향후에 지역센터와 유아 중간지원기관의 공동기획으로 <예술가와 유아교사 대상 콘텐츠 개발 기획공모>를 추진하여 질 높은 콘텐츠가 개발되어 협력의 우수한 사례를 만들어 나간다면 지역 내 지속가능한 유아 문화예술교육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지역 내 문화시설, 유아시설, 대학 등 다양한 지역자원들과 연계가 필요하다. 그간 유아 문화예술교육은 지역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등) 공간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이 핵심 방향이었다. 향후에는 문화시설과 연계된 콘텐츠를 활용하더라도 체험형 수업 진행공간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유아시설 및 기관, 키움센터 등 유아의 자유로운 체험이 가능한 공공시설과의 협력수업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대학과의 교류로 인적자원의 연계도 시도해볼 수 있다. 예컨대 경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대학동아리 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에 소재한 대학과 어린이집 연계하여 체험형 수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처럼 지역 내 다양한 영역의 공공시설과 인적자원을 연계하여 콘텐츠를 개발·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넷째,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에 개정 누리과정의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 유아 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사업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사업이 향하고 있는 ‘유아’라는 존재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19년도에 개정된 누리과정은 만3~5세 유아를 위한 국가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유아·놀이중심’을 추구한다. 이러한 방향성은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본래 취지와 매우 닮아있다. 특히 예술교육에서 강조하는 ‘놀이성’은 무목적성을 추구하는데, 과정 중심의 수업으로 유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처럼 유아를 향한 예술가의 유연한 수업태도와 방식은 누리과정의 5개 영역 중 예술경험 뿐만 아니라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자연탐구 영역과도 통합적으로 연계된다. 따라서 지역자원과 연계된 유아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때에는 누리과정의 핵심방향과 목표를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유아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매개자 대상으로 전문연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지역별로 개발된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180여개에 달한다. 현재는 양적으로 증가하는 콘텐츠 생산을 경계하며, 기존에 개발된 유아 문화예술교육 콘텐츠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할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가정교육 비율이 증가하고, 비대면 수업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매개자(유아교사, 부모) 대상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유아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매개자들이 문화감수성을 지니고 있어야 이것이 유아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아교육 현장에서 비대면 수업 진행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매개자들은 예술놀이 수업을 전달하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을 증진하는 일회성 체험형 연수가 아닌, 예술놀이 수업을 진행, 전달할 수 있도록 매개자 대상 문화예술 전문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세부적인 연수내용 설계는 사업 유관기관을 통한 수요조사, 기획회의 등을 통해 지역 내 유아시설 지원기관 간 협력연수 개설을 타진해 볼 수도 있다. 중앙 차원에서는 직무연수 체계에 있어서 유아교사 대상 40시수 직무연수 커리큘럼 내에 문화예술교육 영역이 교과목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 간의 협의를 모색해야 한다. 이처럼 전국단위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기본연수를 제공하여 각 지역별 현장에서 실행자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다가오는 '22년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방이양으로 인해 각 지역별로 유연하게 맞춤형 사업구조를 설계·운영하는 전환의 시기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이에 중앙 차원에서는 지역 곳곳에 보다 많은 유아들이 문화예술교육 경험을 향유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정보 제공자의 역할로서 질 높은 콘텐츠 보급 및 확산과 매개자 역량강화 지원 등에 노력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

함께 참여한

사람들

전문가 그룹

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권이정 교수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유희정 교수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박초아 교수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 마미정 센터장
 안양대학교 유아교육과 김민정 교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고은 대리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박소라 담당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한나 주임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정진주 과장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중수 팀장, 양소정 실무자, 문엘림 실무자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시화 차장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황지현 대리
 세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최윤정 팀장
 세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김수연 주임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김유미 담당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배은비 주임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윤미선 주임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박찬영 팀장, 이서정 대리
 전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김광훈 팀장, 심현지 주임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현해 팀장, 양영준 주임
 경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유지용 과장
 경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박연미 주임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고영빈 주임

문화시설 관계자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남광옥 주무관, 권민정 문화예술교육사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

서울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엄지홍 보육전문요원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김정신 센터장
 부산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안진희 팀장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김성희 선임보육전문요원
 인천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오선영 센터장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흥원자 센터장
 경기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백인옥 센터장
 경기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백소영 센터장, 문현주 선임팀장, 양은지 선임팀장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정책지원팀 홍유림 팀장, 정슬기 놀이지도사
 경기파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정영숙 센터장
 경북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박정태 센터장, 서기영 보육교사
 경북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팀 홍미향 팀장, 현선옥 보육전문요원

유아교육진흥원 관계자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운영부

김선옥 교육연구관, 박지연 교육연구사, 전지영 교육연구사, 박은영 파견교사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정명희 원장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강정현 교육연구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윤영숙 교육연구사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교육운영과 오유진 파견교사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교육운영부 황희정 교육연구사
 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교육운영과 김경희 교육연구사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이순오 운영과장
 제주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박은정 교육연구사

2021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라운드테이블 주요내용

1. 행사개요

출장명 2021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라운드테이블(중부권)

일정 2021.10.19 (화) 14:00~16:00

장소 레스팅플레이스(충북 청주시)

참석자 총 11인

(전문가) 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권이정 교수

(관계자) 중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지역센터 관계자 8인

(교육진흥원) 허윤정 팀장, 이해중 주임

* 지역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하여 행사 추진

주요내용

지역별 유아가 예술가와 함께 경험하는 '유아 예술놀이' 모색하기

주요내용	
14:00	[인사하기 & 사업소개 & 현황공유]
14:10	[공리1] 우리 지역 유아들이 경험하는 예술놀이(예술경험)에 대한 기회는 충분한가요? (20') ○지역 내 취약특수계층 유아 대상 예술놀이 경험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궁리하기 ○지역 내 돌봄제도 연계하여 공공시설(문화시설, 보건소, 돌봄센터 등)과의 연계 지원하는 방식 궁리하기 등
14:30	[공리2]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 유아 눈높이에 맞는, 참여형 예술놀이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한 에듀테크 및 메타버스를 활용 예술놀이, 코로나19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재난감수성 연계 예술놀이 프로그램 궁리하기
14:50	휴식 및 네트워킹
15:00	[공리3]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공간·사람)을 연계해서 다양한 유아 예술놀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0') ○지역 내 유아(보육)교사 및 부모(가족)와 예술가 등 유아의 교육(보육)·양육자와 예술가 간 협력하는 예술놀이 궁리하기 등
15:40	[자유토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있을까요?

[부록]

권역별 세부

논의내용

2.행사 주요내용

[궁리1] 지역별 유아들이 경험하는 예술놀이(예술경험)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

권이정 교수

- 지역 내 대도시 아이들에 비해 농어촌지역 아이들을 위한 예술경험 기회 제공이 많이 부족하여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함께 논의되었으면 함
- 특히 취약계층 유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문화재단-유아교육진흥원-육아종합지원센터의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 공유 과정이 필요함(현재 지역 내 인적자원에 대한 공유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 ⇒ 지역 내 인적자원/콘텐츠(프로그램) 등 자원지도와 같은 플랫폼 구축 마련 필요함

충남유아교육진흥원

- 현재 유아교육진흥원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화예술공연은 크게 3가지 범주임. 1)일반 가족단위의 공연, 2)다문화가정 대상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3)특수계층 유아를 유치원으로 초청으로 공연관람 지원하는 등임 ⇒ ‘찾아가는 문화예술’ 외 다양한 대상을 고려하여 지원 확장하고 있음
- 내년도부터 문화예술과 접목하여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추진하고자 함. 프로그램 개발은 체험담당 교사들이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일부 세션으로 공연팀을 섭외하기도 함(섭외 시 별도 선발절차를 거침) ⇒ 이후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콘텐츠 개발해도 시너지 있을 것으로 보임
- 교육원이 홍성군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이나, 유치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만 3-5세 유아 및 보호자 대상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음
- 지역 내 연계/협력 가능한 기관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음. 유아교육진흥원도 이러한 인적자원을 공유, 콘텐츠를 아카이빙 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전남유아교육진흥원

- 전남의 경우, 지역은 넓으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지역 전역의 지원을 포괄할 수 없음.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목포 지역의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 문제로 콘텐츠 제공의 한계 있음. 주로 원 내 체험교육 선생님이 공연예술(양상블)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 내 많은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있음 ⇒ 문화예술교육은 예산과 함께 지역별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와 교육적인 측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
- 특히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유치원으로 보내는 콘텐츠(공연 등)은 인증된 콘텐츠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음.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콘텐츠와 연계할 경우에 대한 부담감도 존재함.
- 가족단위 체험의 경우, 지역 내 예술가들 발굴하여 연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지역센터와 함께 공유하면 좋을 듯함(현재 전남센터와의 협력 전무함) ⇒ 단년도로 끝나는 사업 콘텐츠이므로 기관 간 함께 연계되면 좋을 것

[궁리2] 변화하는 환경 속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예술놀이 활동 콘텐츠

권이정 교수

- 현재 유아 대상 기술연계 프로그램의 경우 선실행-후고민 하는 상황임. 기술은 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다 예술의 원본성(authentic, originality) 즉, 예술의 본질을 놓지 말아야 함. 특히 유아 발달기 특성을 고려하여 가상의 활동과 경험은 아이들의 인지적 측면에서 한계 존재하기 마련임. 물론 기술을 활용하여 친구들의 관점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 등은 유아기 사회적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기도 함

충남유아교육진흥원

- 교육부 차원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회복 측면에서 다양한 기술융합 지원 장려하고 있음(메타버스, 미디어아트 활용 등) 다만 이것을 유아에게 어떻게 교육적으로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있음
- 찾아가는 놀이중심 체험 콘텐츠의 경우,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나 유아교사들의 피로도가 높은 편임. 매년 11~12월 무렵에 정기적인 설

문조사(가족체험/교사연수/현장지원 등) 진행하고 있으며, 전년도 희망 프로그램 수요조사 내용 참고하여 기술연계 프로그램 개발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음

- 예컨대 인공지능 로봇의 음성을 활용하여 놀이와 연계한 춤, 역할극 등 시범수업을 진행함. 다만, 기술융합 연계에 능숙한 유아교사가 부재하여 유아교사, 체험교사들의 유아기 특성한 고려한 기술융합에 대한 역량강화가 더욱 중요해짐

[공리3] 지역 내 다양한 자원 연계하여 예술놀이 기회 제공 마련 방식

권이정 교수

- ‘찾아가는 체험 지원’과 ‘협력 지원’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음. 유아교사는 예술분야 있어 전문성이 부족함. 물론 현장에서 유아교사 일정이 바쁘지만, 분명 유아교사 예술분야 역량강화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앙차원에서 직무연수 운영, 관리함) ⇒ 일부 유아교사의 역량강화 우수 사례를 발굴, 확산하는 것이 교육진흥원(arte)의 역할일 것

충남유아교육진흥원

- 충남지역도 유아교사 연수는 기획과에서 진행하며, 신규교사/특수교사 등 연수대상이 세분화되어 있음. 다만, 문화예술 관련 연수는 많이 활성화지 않은 편

전남유아교육진흥원

- 대부분 유아교육진흥원이 기획과/운영과 분리되어 있으며, 유아교사 대상 교원 연수는 기획과에서 추진함
- 지역별 유아교육진흥원과 교류의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라운드테이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었으면 하며, 지역센터 등 유관기관과 내년도 사업구성 단계에서 함께 협력했으면 함

[자유논의] 우리 지역에 필요한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대전센터

- 대전센터의 경우, 유아교육진흥원/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공교육 연계 사업 교육청과의 인연으로 유아교육진흥원 통해서 참여자 모집 협조받고 있음
- 올해 신규단체 프로그램 개발 시범운영했는데, 콘텐츠가 잘 나온편이라 고무적임. 또한, 소외/취약계층 아이들을 고려하여 문화격차 해소하고자 노력했음. 지역센터는 지속적으로 지역 내 문화시설/신규단체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역할 다해야 할 것

권이정 교수

- 지방이양 현실이 반드시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며 오히려 각 지역에 맞게 유연하게 사업구조를 설계, 운영될 것으로도 보임.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지방이양이 되면, 지역별 편차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중앙차원에서는 콘텐츠 공유/확산, 질 관리를 위하여 이에 대한 플랫폼으로서의 정보제공, 균등한 역량강화의 제공 등에 대한 역할을 다해야 할 것 ⇒ 중앙 차원에서 플랫폼으로서 교류의 장, 역량강화의 기회 제공 더욱 마련할 필요 있음

2021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라운드테이블 주요내용

1. 출장개요

출장명 2021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라운드테이블(호남권)

일정/장소 2021.10.22 (금) 14:00~16:00/전주 리랩(전북 전주시)

참석자 총 15인

(전문가)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유희정 교수

(관계자) 호남권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지역센터 관계자 12인

(교육진흥원) 허윤정 팀장, 이해중 주임

* 지역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하여 행사 추진

주요내용

지역별 유아가 예술가와 함께 경험하는 ‘유아 예술놀이’ 모색하기

주요내용	
14:00	[인사하기 & 사업소개 & 현황공유]
14:10	[공리1] 우리 지역 유아들이 경험하는 예술놀이(예술경험)에 대한 기회는 충분한가요? (20') ○지역 내 취약특수계층 유아 대상 예술놀이 경험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공리하기 ○지역 내 돌봄제도 연계하여 공공시설(문화시설, 보건소, 돌봄센터 등)과의 연계 지원하는 방식 공리하기 등
14:30	[공리2]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 유아 눈높이에 맞는, 참여형 예술놀이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한 에듀테크 및 메타버스를 활용 예술놀이, 코로나19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재난감수성 연계 예술놀이 프로그램 공리하기
14:50	휴식 및 네트워킹
15:00	[공리3]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공간·사람)을 연계해서 다양한 유아 예술놀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0') ○지역 내 유아(보육)교사 및 부모(가족)와 예술가 등 유아의 교육(보육)·양육자와 예술가 간 협력하는 예술놀이 공리하기 등
15:40	[자유토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있을까요?

● 논의 키워드 : 유관기관 간 협의체 구성, 민관 협력, 사업의 가치 내재화, 인적자원 발굴+협업 양성, 매개자 역량강화

2. 출장 주요내용

[들어가며] 지역별 유아 사업 현황 및 성과 공유

광주센터

- 운영단체들은 교육청 지침으로 인해, 주 1 회씩 코로나 음성여부 검사 후 수업 진행 중.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유아시설 지원기관과의 직접적인 컨택 어려움 있음
- 올해 매개자(유아교사 및 학부모) 대상 연수 추진 준비 중임

전북센터

- 권역별 운영기관 3개 운영되고 있으나, 3개 운영기관의 지리적 아쉬움 존재함. 지역 내 14개 시·군에 거점을 갖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단체들 육성을 할 필요가 있음(현재는 전주 중심임)
- 코로나의 상황으로 유아 대상 비대면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노하우, 방법론들이 충분히 공유되어서 지역 현장에서도 많은 노하우들이 축적되었으면 함

전남센터

- 유아 사업 내에서 유아교사 대상 연수공모 추진하였으며, 지원이 저조했으며, 선정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음. 특히 지역 내 21개 시·군 교사 대상 유아시설 지원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협조 없이는 유아교사 대상 연수 운영이 어려운지라,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모시고 자문회의의 진행,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선상으로 협조 요청하여 유아교사 대상 연수를 추진하고 있음진행하고 있음
- 사업 컨설팅, 자문 이후에 현실적인 한계로 지역 현장에 적용이 어려운 부분 존재함. 특히 유아가 지역 내 문화시설 활용하여 예술놀이 경험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인데, 지역 내 수업 진행할 수 있는 창의적 공간들이 많지 않아서 체험형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의 공극적 취지를 지역 여건에 맞게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중

제주센터

- 사업이 과연 문화시설 혹은 수혜자(유아)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 있음. 특히나 내년도 사업이 지역으로 이관되는 시점에서 현장에서 문화시설 연계 보다 수혜자를 위한 접근성, 확장 방식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음. 이러한 고민이 사업이 지역이관 이후에 더욱 심층되지 않을까, 제주 역시도 사업의 근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고민 있음

[공리1] 지역별 유아들이 경험하는 예술놀이(예술경험)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

유희정 교수

- 사업의 수혜자인 유아는 누군가를 동반해야 하므로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임. 이를 고려하여, 사업의 주요 타겟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에 참여하는 일반유아 대상인지, 취약계층 유아 대상인지 사업의 주요 대상 명확화
- 만약 취약계층 대상 지원의 경우, 지역별 돌봄센터 연계 등의 방식은 돌봄센터는 참여 어린이의 연령대가 높은 편(초등·중등 중심)이고 인력이 거의 없는 편인지라(원장, 멘토) 돌봄센터에 유아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있는가 선행조사 등 돌봄센터 연계가 적합한 방식인가 재고 필요 ⇒ 사업 현황 분석 연구 기반으로, 사업 대상 세분화

전북유아교육진흥원

- 전북에서는 지원대상을 일반/소외계층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음. 도 교육청이 소외계층 지원에 대한 정책 고민을 하는 역할이라면, 진흥원이 유아교육체험 지원함
- 주요하게 3가지 사업 유아체험/교원연수/교재·교구대여 진행하고 있음. 유아체험은 실내·외부로 구분되어 있고 5개 영역 체험이 정해져 있음. 도 내에 있는 공·사립 유치원이 신청을 통해 체험 활동함. 자 자체 설비가 잘 마련되어 있어서 지역 내에서도 활발히 이용하고 있음. 주로 지역 내 극단에 있는 공연들을 초청하여 진행하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지역 내 자원 발굴의 기회 마련하고자 함. 기존에 지역 내 예술가를 컨택, 연계하기가 어려웠음(한국소리문화의전당 컨택

했으나 등 예산 문제로 추진되지 아니함) 유치원에서는 방과후 특성화 활동을 주3회 진행할 수 있는데,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함께 추진하면 좋을 것(단, 기관 간 사전 협의 필요) ⇒ 기관 간 연계를 위해서는 사업 추진 전년도에 기관 간 예산 협의 단계 필요

- 교원연수에서 문화예술 영역 관련 연수 일부 개설의 여지 있음. 또한, 기관장의 문화예술 분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함 ⇒ 기관장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추진 필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

- 제주에서는 주요하게 3가지 사업 유아체험/교원연수/유치원평가 진행하고 있음. 유아체험으로 문화예술 전문 공연단 6개 팀을 선정하여, 교육행사 활동 지원함. 공연팀과 유치원은 매년 초에 공모로 선정하며, 주로 공연예술 분야(재즈, 국악, 이야기극)를 지역문화자원(제주통설화, 제주해녀)와 연계하여 진행함

광주센터

- 지역 내에 문화시설은 많으나 예술단체 연계 운영 수요가 적어서, 공모사업 내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문화시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지 고민임(운영방식의 자율성 범위 등) 만약 사업이 지역이관 된다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수, 참여인원에 대한 변동 줄 것으로 보임

전남센터

- 사업의 대상을 다각화하고자 매개자 연수 기획함. 유아교육진흥원과 교사대상 연수를 직무연수로서 시수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의했음. (단체에서 기획한 연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을 고안하기 위해) 올해는 직무연수 추진은 어려웠으나, 유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유아교사 연수를 직무연수로 인정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안 필요 ⇒ 중앙 차원에서 유아교사 연수 직무연수 연계 추진 방법 논의 필요

제주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꾸준한 협업으로 참여자 모집, 만족도조사 등

사업 관련 협조 받고 있음. 유아교사 연수를 추진하며 ‘과연 1-2회차 연수가 효과성이 있는가?’라는 사업의 근본적인 과제인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게 됨. 협력사업으로 예술가-유아교사의 구조 이야기되고 있지만 유아와 예술놀이에 대한 접근방식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협력 어려움. 오히려 기획자양성학교와 같이 사업에 부합하는 역량과 태도는 지닌 인력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함 (예술가적 자질이 있는 유아교사, 유아교사의 태도를 지닌 예술가 등) ⇒ 사업 매개인력의 발굴과 협업 함께 진행해야 시너지 극대화될 수 있음

[공리2] 변화하는 환경 속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예술놀이 활동 콘텐츠

유희정 교수

- 결국 사업에서 ‘지속가능성’이 관건으로 보임. 지역별 개발된 프로그램이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됨에 아쉬움 있으며 어떻게 지속, 확장될 것인가 고민해야 함
- 지역 내 콘텐츠 공유를 위한 아카이빙 필요함. 대부분 활동은 체험 중심으로 되어 있기에 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콘텐츠(예술놀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확산, 지속될 수 있을 것 ⇒ 콘텐츠 축적, 재가공에도 전략이 세분화되어야 하며, 발전적인 성과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
- 또한, 그것이 유아라는 대상에 가닿기 위해서는, 유아 곁에서 수업을 함께 이끄는 매개자 대상(원장·원감, 유아교사, 부모) 연수가 필요함.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의 의무적무연수/보수교육 내 문화예술 분야 직무연수로 인정된다면 유아교사의 참여가 보다 수월하지 않을까. 동시에 관리자급(원장·원감) 대상 연수가 중요함
- 유아기부터 ‘아름다움’을 감지할 수 있는 미적활동에 많이 노출될 필요가 있음. 이것은 미적인 친숙감을 의미하는데, 유아기 특성을 고려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아름다운 것을 느끼고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필요로 함(부모 혹은 유아교사) 그렇기 때문에 매개자 대상의 문화예술 역량강화가 매우 중요함

전북유아교육진흥원

- 유아교사 연수 내에서 누리과정 연계 예술놀이 기회 제공, 사회적 이슈가 되는 기술융합, 환경, 성인지 감수성 등 교육에 대한 수요 확인하면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단, 유아교사 연수를 통해 프로그램 진행에서 어떤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는 연수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

[공리3] 지역 내 다양한 자원 연계하여 예술놀이 기회 제공 마련 방식

유희정 교수

- 지역이관 고려하여 지역별 맞춤형 사업 운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별 사업 구조 세부화를 위해서는 중앙 차원에서 사업 현황 조사 필요 유아 문화예술교육이 유아를 대상으로는 직접적, 구체적 경험이어야 하므로, 프로그램 개발단계부터 유아교육 전문가가 포함 사업 컨설팅 추진한다면, 방법론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을 것

전북유아교육진흥원

- 본 행사를 통해서 유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생겼으며, 유관 기관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음

광주센터

- 유아 사업이 지역센터 안에서도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편이며, 확산 등 기관 간 협력이 어려운 실정임. 내년도 사업 지방이양 되는 것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사업 가이드가 필요함.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면, 사업 내외부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여짐. 이것은 지방이양 과정에서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논의 필요할 것 ⇒ 중앙차원에서 지역별 효율적인 사업 운영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사업 가이드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 중앙-지역 간 협력 지속적으로 병행 필요
- 시교육청 담당 주무관님과 소통 시도했으나, 생각보다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 육아종합지원센터 컨택은 아직 시도하지 못함.

2021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라운드테이블 주요내용

1. 출장개요

출장명 2021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라운드테이블(경상권)

일정 2021. 10. 26 (화) 13:30~15:30

장소 복합문화공간컬티(울산 북구)

참석자 총 23인

(전문가) 울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박초아 교수

(관계자) 경상권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지역센터 관계자 19인

(교육진흥원) 허윤정 팀장, 노서희 주임, 이해중 주임

* 지역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하여 행사 추진

주요내용

지역별 유아가 예술가와 함께 경험하는 '유아 예술놀이' 모색하기

주요내용	
14:00	[인사하기 & 사업소개 & 현황공유]
14:10 (20')	[공리1] 우리 지역 유아들이 경험하는 예술놀이(예술경험)에 대한 기회는 충분한가요? ○지역 내 취약특수계층 유아 대상 예술놀이 경험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공리하기 ○지역 내 돌봄제도 연계하여 공공시설(문화시설, 보건소, 돌봄센터 등)과의 연계 지원하는 방식 공리하기 등
14:30 (20')	[공리2]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 유아 눈높이에 맞는, 참여형 예술놀이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한 에듀테크 및 메타버스를 활용 예술놀이, 코로나19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재난감수성 연계 예술놀이 프로그램 공리하기
14:50	휴식 및 네트워킹
15:00 (40')	[공리3]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공간·사람)을 연계해서 다양한 유아 예술놀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역 내 유아(보육)교사 및 부모(가족)와 예술가 등 유아의 교육(보육)·양육자와 예술가 간 협력하는 예술놀이 공리하기 등
15:40	[자유토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있을까요?

전북센터

- 전북 지역이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유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설, 단체, 공간 등 자원이 부족한 편. 현실적으로 공적영역을 벗어나 비영리 수반되는 민간영역(백화점 문화센터 등)에 의존하기 마련임. 이러한 배경 하에 유아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공적영역 안에서 한정된 예산과 재원에 갇히게 되는 한계 존재함.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 및 민간 영역 함께 협력하는 것도 필요함 ⇒ **민관협력 등 보다 열린 사고로 각 지역적 특색과 요소들을 활용해 독특한 시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널리 확산될 필요가 있음**

전남센터

- 유아 문화예술교육 질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기관 간, 개인 간 협력 지속해야할 것. 필요시에 **예산 등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 필요**
- 현재 유아교육진흥원과 참여자 모집 및 홍보시 도움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

제주센터

- 내년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과 협력 예정이며, 유아 사업을 더욱 홍보할 필요 있어 보임. 행정용어가 아닌 이미지로서 전달하여 유관기관 관계자가 **사업에 대한 중요성, 가치에 대해 내재화 되는 과정 필요(유아기부터 지역 내 문화시설에 방문, 참여하여 예술감수성 함양)**

- 논의 키워드 : 직무연수 교과목 인정(예술영역), 매개자 역량강화, 콘텐츠 보급 방식 다각화(영상, 연수)

2. 출장 주요내용

[들어가며] 지역별 유아 사업의 현황 및 향후 계획 공유

부산센터

- 3년간 동일 시설·단체가 사업운영하고 있어 차년도에 신규 단체 발굴에 주력하고자 함. 콘텐츠 보급과 확산에 대한 고민 지속적임

울산센터

-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시설 대상으로만 교부를 하고 있음(예술단체 컨소시엄x). 궁극적으로 왜 문화시설만 지원해야하는가에 대한 의문 있어 차년도에 시설-단체 컨소시엄으로 공모 예정임

경남센터

- 현재 문화시설은 장소제공 역할만 제공하고 있으며(시설에서는 공연, 전시 위주 사업 진행하기 때문), 시설에 연계된 콘텐츠를 발굴이 더욱 필요함. 또한, 예술단체가 바뀜으로서 콘텐츠가 사라지는 현상 발생함. 예술단체-시설 지속적인 협력 필요함.

대구센터

- 유아교육기관에서 방문형(유아기관 방문형) 보다는 체험형(문화시설 방문형) 선호하며, 내년에는 보다 현장의 목소리 수렴하여 사업 구체화해나갈 예정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경북 지역 사업 참여 시설

- 전당은 공연장으로 경북문화재단과 안동시 예산 활용하여 운영됨. 특히, 공공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에서 참여에 협조적이었음. 다만, 프로그램 운영시기가 유치원 학사일정과 다소 맞지 않아 향후 조율이 필요해 보임

[공리1] 유아 문화예술교육 매개 인력의 역량강화 수요

박초아 교수

- 울산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문화자원 부족한 편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이 문화시설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유아 사업의 적극적 참여가 어려운 구조임. 유아와 연계된 유관기관 연계하는데 저변 확대에 주력 필요해보임
- 코로나 시기를 기회로 삼아 비대면 방식으로 매개자 대상 역량강화를 활성화 했다면 더욱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음. 현재는 유치원, 어린이집 특별활동을 통해 예술놀이 수업이 진행되나, 이후 지속가능성을 위해 매개자 대상 역량강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또한, 이후에 예술가-유아교사 협력관계로 연계사업 진행된다면 더욱 좋을 것
- 개정누리과정 모든 요소들이 '예술경험'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예술강사가 전문가로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함.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자체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관간 협업하면서 사업을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부산유아교육진흥원

- 올해 유아 사업 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지난 7월 부산센터가 추진한 유아 유관기관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함. 교육청 차원에서 유아기 예술경험 중요성 인식하고 있음. 진흥원은 ①가족체험, ②교원 연수 등 운영함. 올해는 찾아가는 수업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유아교사 대상 연수를 전문적으로 듣고 싶다는 수요 있기에 내년도에 이를 준비하고자 하며 지역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할 의사 있음(월 2회, 회당 10시수, 문화예술 체험)
- 유아교사 대상 연수 수요 높은 편인지라, 지역 내에서 개발한 유아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단발성과 끝나는 것이 아쉬워, 부산센터와 협업하여 교사연수 추진할 것을 먼저 제안함

부산육아종합지원센터

- 지난 7월 부산센터가 추진한 유아 유관기관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하며 부산센터의 존재를 알게 되었음. 부산센터와 연계 사업으로 디오티미술관 유아교사 프로그램을 일부 변형하여 4회차로 운영하고자

함(4회차, 회당 3시수)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교사연수를 의무 지원하고 있으므로, **교사 연수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여짐**. 그 이유는 개 정누리과정, 표준 교육과정의 놀이 중심 수업 진행을 위해 보육교사의 '예술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함. **보육교사가 아이들과 놀이함에 있어서 창의적, 예술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기에 인력양성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짐**
- 비대면 상황 고려하며, 매개자들이 온라인으로 예술경험할 수 있는 영상 등으로 온라인 역량강화 교육도 고려 필요 ⇒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사의 예술역량 강화 필요**

경북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영유아 대상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지원은 적은 편임. 현재 한시적 문화예술 체험 제공이 아쉬움.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경험 지원하는 것 필요하므로 **현재 유아 사업에서 단체가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과 연계하여 보육교사 대상 교육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역 내 유관기관 간 협력, 연계에 대한 강한 의지 있음**

경북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연 4회 관람 위주 프로그램 진행했으며, 예산을 지원받거나 영유아 가정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기대하고 참여함. 본 행사를 통해 경북센터 알게 되었고 긴밀한 협력 이루어졌으면 함

[공리2] 예술놀이 콘텐츠의 접근성과 확산성

박초아 교수

- 매년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데, **유아 대상 콘텐츠 확산 등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 필요함**. 최소한 3~5개년 안에서 이 논의들이 반영되어야 함. 필요할 경우 진흥원에서 예산확보해서 그 방향성에 대한 노력 다해야 할 것
- **교육부, 복지부의 아이누리 홈페이지가 있는데, 양질의 콘텐츠가 해당 플랫폼에 탑재된다면 더욱 확산될 것**

- 전국 125개 육종이 있는데, 진흥원(arte)을 중심으로 **지역센터, 예술단체 현황,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자료화시켜 중앙육아종합 지원센터에 공유하면 광역·기초 단위에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경북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비대면으로 수업 전환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여 한계 있었음. 공유자료처럼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많이 보급, 확산되었으면 함(단, 저작권 협의된 자료에 한하여 활용) ⇒ **현장에서는 예산 지원 뿐만 아니라 콘텐츠(정보) 지원도 중요한 지점**

부산센터

- 문화시설에서 진행되는 체험형 수업의 경우, 예술강사 없이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데, 예술강사가 빠지면 프로그램의 질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에 대한 문제의식 있음 ⇒ **양질의 콘텐츠 보급, 지역 내 확산을 위해서는 매개자 역량강화 함께 고려되어야 함**

울산센터

- 공연예술 외 다른 예술분야의 유아 콘텐츠 개발 희망하는데, 해당단체가 지원하지 않아서 사업 홍보에 대한 고민 있음. 최근 3건 개발한 콘텐츠는 결과보고서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됨 ⇒ **콘텐츠 운영 단체 발굴 차원에서 플랫폼 이용한 홍보 필요**

경북센터

- 한정된 유아 사업 예산으로(평균 2억)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콘텐츠 보급 확산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있음
- **프로그램을 재가공하여 또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 보급, 확산하는 방법도 고려되었으면 함** (예시. 유아 프로그램 + 매개자 콘텐츠 보급 확산)

경남센터

- 예술강사와 휴직중인 유아교사 협력으로 프로그램 함께 개발함. 프로그램의 수준이 높아졌는데, 예술활동 중심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대중적인 유아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활용

도는 높지 않음 ⇒ 매력적인 콘텐츠가 있다면 확산 고려하여 이해하기 쉬운 영상으로 제작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양질의 검증된 콘텐츠는 확산 측면에서 연속지원하는 지원방식도 고려

[공리3] 기관 간 사업의 실효성 있는 결합 방식 모색

박초아 교수

- 현장에서 교사연수에 대한 필요성은 있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마련.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직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연간 40시수) 직급이 올라갈 때마다 80시수 의무교육 이수하도록 되어 있음. 이런 직무연수의 강제성을 활용하여 '예술감수성' 역량 강화를 위한 과목으로 지정하는 것 고려할 것. '14년도 보건복지부 주관(육아정책연구소 수행)하에 교과목 개발 연구 진행했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등의 채널로 교과목 개발 연구시 예술영역을 넣을 수 있다면 가장 최선일 것.

부산유아교육진흥원

- 모든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유아교사 대상 연수 개설하도록 되어 있음. 유치원은 1년 단위의 보수교육이 있는데, 직무연수라고 해서 역량강화/직위승급을 위한 연수로 나뉘어져 있음.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는 자체 개설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세부 논의는 연말에 진행되어야 하며, 연중에 논의될 경우 내년도 연수에 반영될 수 밖에 없음

부산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육과정 흐름이 '놀이'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교과목 포함여부 등 현재가 시의적절해 보임. 그 영역의 책임연구자 임부연 교수님(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으로 알고 있으므로 필요시 그 분과 논의할 것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별도 논의 예정

경북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

- 현재 내년 사업계획 단계이니 시의적절하며, '예술'분야는 개정 누리 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을 것. 소수일지라도 의무/무료교육이라면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기대

2021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라운드테이블 주요내용

1. 행사개요

출장명 2021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라운드테이블(수도권)

일정 2021. 10. 29 (금) 14:00~16:00

장소 삼경교육센터라움(서울 용산구)

참석자 총 23인

(전문가)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 마미정 센터장

(관계자) 수도권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지역센터 관계자 18인

(교육진흥원) 시민교육본부 김자현 본부장, 허윤정 팀장, 이해중 주임,

임미소 주임

* 지역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하여 행사 추진

주요내용

지역별 유아가 예술가와 함께 경험하는 ‘유아 예술놀이’ 모색하기

주요내용	
14:00	[인사하기 & 사업소개 & 현황공유]
14:10 (20')	[공리1] 우리 지역 유아들이 경험하는 예술놀이(예술경험)에 대한 기회는 충분한가요? ○지역 내 취약특수계층 유아 대상 예술놀이 경험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궁리하기 ○지역 내 돌봄제도 연계하여 공공시설(문화시설, 보건소, 돌봄센터 등)과의 연계 지원하는 방식 궁리하기 등
14:30 (20')	[공리2]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 유아 눈높이에 맞는, 참여형 예술놀이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한 에듀테크 및 메타버스를 활용 예술놀이, 코로나19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재난감수성 연계 예술놀이 프로그램 궁리하기
14:50	휴식 및 네트워킹
15:00 (40')	[공리3]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공간·사람)을 연계해서 다양한 유아 예술놀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역 내 유아(보육)교사 및 부모(가족)와 예술가 등 유아의 교육(보육)·양육자와 예술가 간 협력하는 예술놀이 궁리하기 등
15:40	[자유토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있을까요?

- 주요 키워드 : 양육유형별 지원방식 다각화, 메타버스 연계 콘텐츠 개발, 유아교사-예술가 협력 콘텐츠 개발, 인적자원 범위 확대(유아교사 및 부모), 매개자 역량강화 지원 체계화(직무연수/예술감수성 교육 등), 지역 내 공간보유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연계 등

2. 출장 주요내용

[들어가며] 지역별 유아 사업의 현황 및 고민지점 공유

서울센터

- 작년에 이어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참여자 모집이 많이 어려웠음. 지역사회와 네트워크가 마련되어 있으면 모집에 큰 지장이 없을텐데,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음. 사업 예산(2억)으로 지역 전역을 지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보편적인 접근으로 콘텐츠를 확산해야 하지 않을까. 사교육과 차별화 된 사업 포지셔닝 과 기반 마련과 저변확산에 대한 고민 있음

인천센터

- 전년대비 큰 변화는 연속공모로 인해서, 상반기 참여 유아기관이 큰 폭으로 증가함. 유관기관 협력으로 공신력 기반으로 참여자 모집 후, 센터가 직접 참여 유아교육기관-단체 매칭함(신규 우선 선정). 사업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가 특강 진행하며 체계화에 주력하고자 했음. 단,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 있음
- 유아교사에게 예술가의 놀이방법 공유를 위해 전달식 연수 성격으로 유아교육진흥원과 올해 2월 개정누리과정 심화연수와 권역별 조부모 연수 진행.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하반기 부모/조부모 연수 연계 준비 중. 향후에서도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용하여 연계 예정임
- 문화센터와의 차별화는 지역자원과 연계하는 것이 포인트로 보여짐

경기센터

- 올해 6월에 사업을 담당하게 되어 사업을 알아가고 있는 단계임. 총 5개 기관과 공모, 기획사업 진행함. 현재 사업 내 포괄되지 않은 돌봄 가정 유아 대상 기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특히, 경기북

부지역에는 문화소외 지역(기지촌 등)이 많고, 기초재단이 없음.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과 협업하여 단체(전통연희어린이박물관)가 있는 기지촌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한 바 있음. 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자원 발굴하여 찾아가는 형태의 기획사업 추진 고려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비대면 수업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유아교사 연수의 필요성 더욱 절감하고 있음.

[공리1] 내년도 지방이양 상황 고려하여 사업의 변화가 필요한 지점 있는가

마미정 센터장

- 현재 사업이 유아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향후 사업이 지방이양 되더라도 지역센터가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지원대상과 범위 설정이 명확해야 함. 예산 부분에서 가장 일반적 형태의 사업 예산을 잡고, 유아의 양육 유형별(유아교육기관/돌봄/공동육아 등) 콘텐츠 지원 방향이 달라져야 함
- 사회환경 변화흐름 고려한 콘텐츠 개발에서는 매개자 대상 교육이 더욱 중요함. 예컨대, 유아 대상 메타버스 교육보다는, 유아교사 대상 메타버스 대상 교육이 필요. 가능할 경우 중앙 차원에서 유아교사를 위한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추진 고려할 것. 교사 대상 연수는 의무/선택 연수에 따라 동기부여가 다르기 때문에 ‘직무연수’ 보다 ‘문화감수성’ 용어를 사용하여 교사의 자발적 참여 강조한 문화감수성 역량 제고를 권장함. 현재 개정 누리과정에서 ‘놀이’의 통합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놀이중심 교육이 향후에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짐. 유아에게 있어 유아교사 뿐만 아니라 부모도 중요한 교육 대상이므로 인적자원을 부모 대상으로 확장할 필요 있음
- 지역 내 콘텐츠 확산, 연계 측면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유아교육진흥원에서 웹진 등 자체 홍보채널이 있는데 유관기관의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지역센터의 콘텐츠, 프로그램, 행사 등 소소하게 홍보, 연계되면 좋을 것

[공리2] 콘텐츠의 접근성과 확산성 고려하여 콘텐츠 개발 어디까지 지원 필요한가

마미정 센터장

- 전국단위 유아교사 및 부모 대상 수요조사 추진 권장. 손 유희 외 예술놀이 진행을 위한 수요조사 진행하면 지역특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 현장을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획사업 내에서 유아교사-예술가 협력 콘텐츠 개발 추진하면 유아교육 현장과의 괴리가 해소되지 않을까. 콘텐츠 개발 시에는 예술가 뿐만 아니라 보육/유아교육 전문가 함께 협업. 여가부에서 추진하는 동아리사업 ‘아빠육아천사(1004)단’과 같이 유아교사 대상 연구모임 성격으로 센터와 연계하여 인적 자원 발굴 차원의 콘텐츠 지원 필요

김자현 본부장

- 유아교사 대상 연수는 1)유아교사에게 예술경험 기회 제공이 목적 인지, 2)예술놀이 실행이 목적인지에 따라 접근방식 및 내용이 다를 것 ⇒ (마미정 센터장 의견) 전자는 기존의 연수과정에 예술영역이 스며들도록 개정 누리과정 영역에서 일부 커리큘럼 포함 등 교육적 제도로 타진하는 것이며, 후자는 그것을 누가 교육시켜서 이 전달의 주체가 누구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임

김민정 교수

- ‘17년 교육진흥원-EBS 콘텐츠 개발 자문교수로 참여한 바 있으며, 당시에 양질의 콘텐츠에 어떻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인가? 등 유아 예술놀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 논의했음
- 현재 안양대학교 인형극 동아리를 지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어린이 대상 공유, 확산을 위해 영상으로 콘텐츠 제작하고 있음. 메타버스,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예술교육의 방향에서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이 핵심으로 보이며,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할지 궁리하고 있음

인천센터

- 유아교사 대상 일반연수 진행하며 심화과정 수요가 있는 분들은 현

[부록] 권역별 세부 논의내용

장의 플레이어로서 양성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교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예술가가 어떻게 예술적인 것 접목할 수 있을지 함께 모색하는 방식 등이 이상적임. 이를 위해 중앙 단위에서 기본 소양을 쌓는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보다 심화, 협업을 원한다면 각 지역센터와 연계되어 지역별 예술가와 협력할 수 있는 콘텐츠에 더욱 집중하는 방식 권장

경기육아종합지원센터

- 지역 공무원 주도로 영유아 문화예술 수행기관으로 경기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오페라 수업 진행한바 있음. 공연예술 활동 중심으로 참여자 모집은 지역에 소재한 대학과 어린이집 연계하여 체험형 수업 진행했음. '대학동아리 연계사업' 일환으로 지역 내 대학과 센터 등 지원 연계하여 예산 등 현실적 여건 고려하여 대학생 2-3인이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진행함
-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가 대상 영유아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선행되어야 함

경기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이천 지역은 공예, 생태 자원이 많으나 성인중심의 시설이다 보니, 그 한계를 넘어서고자 센터 안으로 도자재단 프로그램들을 연계하기도 하고, 생활공예 체험 중심의 수업 진행함. 유아는 보호자를 동반하기 때문에 교사 및 부모 대상 '문화감수성' 연수 내에 문화예술 경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콘텐츠 개발 주제는 매년 변화하며, 실제로 '손 유희' 활동인 생태미술 등에 꾸준한 수요가 있음. 가정양육지원에서는 오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호하며, 특별활동에서 자유놀이 등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수요 있는 편임. 현재 시에서 보육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 내에 박물관이 건립되면 프로그램도 함께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부산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예술놀이에 대한 인프라가 수도권 지역보다 부족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역 간 콘텐츠 격차도 해소할 수 있는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되면

좋을 것. 부산문화재단이 문화예술 공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인형극, 합주단 등 찾아가는 프로그램 연계 진행함. 지역 내 콘텐츠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 연계한다면 더욱 시너지 있을 것

[공리3] 사업의 실효성 있는 결합의 방식(개발과정에서 유아전문가 참여, 연수 체계화 등)

마미정 센터장

-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역할임. 교사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직무연수 있지만,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직무교육으로 한 과목으로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커리큘럼 포함하는 것임. 교육부(유치원), 어린이집(보건복지부)에서 표준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통합적으로 '놀이'가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시의적절함. 현재 직무교육이 40시수인데, 문체부-교육부/보건복지부 부처간 협의를 거쳐 2-3시간만이라도 문화예술 과목으로 포함되는 것 고려 필요. 어린이집 직무교육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이 관할하고 있음하고 있음. 또한, 관리자/교사 대상 교육 함께 병행해야 하여 함(특별활동-문화예술 구분 필요)

경기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유아교사-예술가 협업하여 함께 모색하는 논의 필요하며 보편적 지원에서 특수소외계층 지원으로 나아가야 할 것
- 전국 어린이집에 동일한 사업 지원이 돌아갈 것 같지 않음. 가정양육 지원팀에서는 지역별 센터에서 자체 놀이시설(놀이실)을 활용한 경험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업 내에서도 이러한 지역자원 고려하여 설계해주실 것. 놀이실 활용 프로그램은 분기별 주제를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센터 안에서도 자유로운 예술놀이가 화두인데, 기존 자원으로 프로그램 진행함에 다소 한계가 존재함. 적정한 놀이공간과 콘텐츠 연계, 결합도 가능하다면 기관간 시너지 창출할 것으로 보여짐

[자유논의] 우리 지역에 필요한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자유논의

마미정 센터장

- 어린이집, 유치원 관계자 대상 예술가-유아교사의 시각을 결합한 공모 추진을 권장하며(가칭. “생각 둘, 우리는 하나”) 양질의 콘텐츠가 지역 내에서 지속가능해질 수 있는 생태계 마련 필요. 인천 지역은 활발하게 보육정보를 공유하며 있으며, 기관 간 협력을 고려한다면 연말에 협력사업 등이 활발히 논의되어야 내년엔 수월한 협업 가능해질 것

서울센터

- 작년에 예술가 부모 대상 프로젝트 진행했으며 매개자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짐. 콘텐츠/프로그램에 대한 접근보다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아이를 보고 있는가’, ‘왜 유아에게 예술을 지원하는가’ 등 본질적인 사업의 대상(유아)에 대해 고민할 것

경기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부모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예술놀이는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음. 지역센터에서 부모대상 연수 추진하고자 한다면 연계할 수 있는 부분 함께 모색하기를 희망함

경기파주육아종합지원센터

-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가 순수예술 놀이경험과 메타버스 경험 이 공존했으면 하며, 아이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이러한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함

발행인
이규석

발행일
2021. 12

발행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협력팀

운영
컬처앤유

디자인
히히향 eyyy.design

등록번호
KACES-2140-C011

ISBN
978-89-6748-405-7 [9337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76 YTN뉴스퀘어 10-12층 (우03926)
TEL 02-6209-5900 · FAX 02-6209-1392 · www.arte.or.kr

본 자료집은 저작자와 출처를 표기하면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영리적 이용과 2차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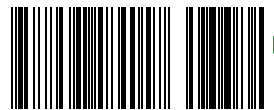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충청북도 종합지원센터 17개 시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비매품 / 무료



ISBN 978-89-6748-405-7 (93370)